



특허청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6. 20.(월) 09:00	배포 일시	2022. 6. 20.(월) 08:30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책임자	과 장 김영배 (042-481-5959)
		담당자	주무관 손동석 (042-481-3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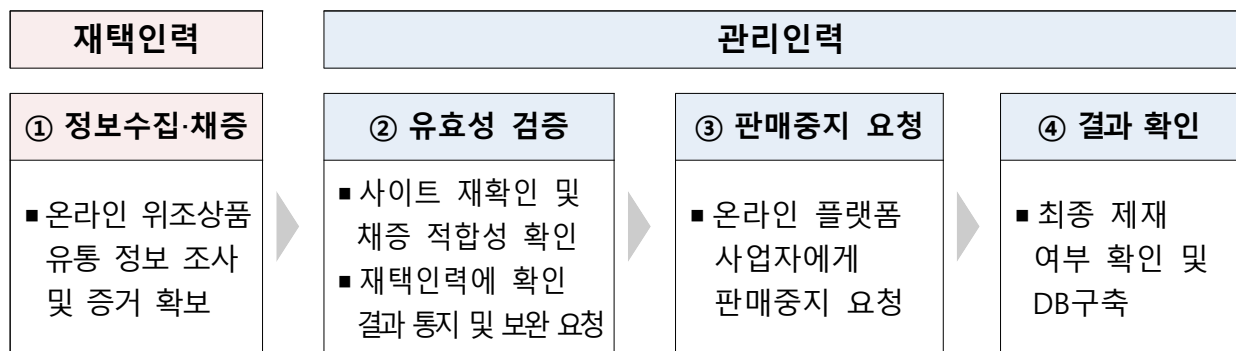
특허청, 위조 스포츠의류 온라인 유통 집중단속 실시

점검(모니터링)단을 통한 온라인 위조상품 집중 점검(모니터링) 추진(6.21~7.20)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위조 스포츠의류(축구 유니폼 등)를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점검(모니터링)단’을 통해 집중 점검(모니터링)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 오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 열기가 고조되고,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속팀(토트넘) 유니폼, 국가대표 유니폼 및 유명 브랜드 유니폼 등에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는 것을 조치하기 위해,
- 특허청은 153명의 재택 점검(모니터링)단을 통해 집중 점검(모니터링)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재판매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상습·대량 판매자에 대한 상표 특사경 수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위조 스포츠의류(축구 유니폼 등)에 대한 집중 점검(모니터링)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6.23.)할 예정이다.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집중 점검(모니터링) 단속발표를 통해 위조 스포츠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 보호에 힘쓸 예정”이며, “이번 집중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의류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 도입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개요)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재택 모니터링 인력으로 채용하여 온라인 주요 유통채널 대상 위조상품 유통 게시물 차단
- (인력운영) 총 153명(재택인력 : 145명, 관리인력 : 8명)
 - *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인력(명) : 110('19) → 126('20) → 153('21) → 153('22)
 - 관리인력 1명당 재택인력 18명씩 총 8개조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채널별 위조상품 유통량에 따라 모니터링 인력 재배치가 가능
 - 은밀화·교묘화*되는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실시
 - * SNS(인스타 등), 포털사이트(블로그, 카페)는 오픈마켓과 달리 상점폐쇄, 계정삭제가 어렵고, 재개설이 용이하여 위조상품 재판매가 빈번
- (업무 절차) 재택인력은 위조상품 게시물 정보 수집 및 증거물 제출, 관리인력은 유효성 검증 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요청
 - 위조상품 지칭 키워드 검색을 기반으로 주요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대상 온라인 위조상품 정보수집

<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업무절차 >



* 국민 생활·안전 관련 품목 대상 연 3회 기획 모니터링 예정(휴일모니터링 포함)